

# 주장자 따라...

③ 용성 스님의 '애국심'



조태호



용성 스님(1864~1940): 전북 장수 生, 해인사 극락암에서 화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선학원 설립.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동참. 선농일지와 경전한글화운동 등 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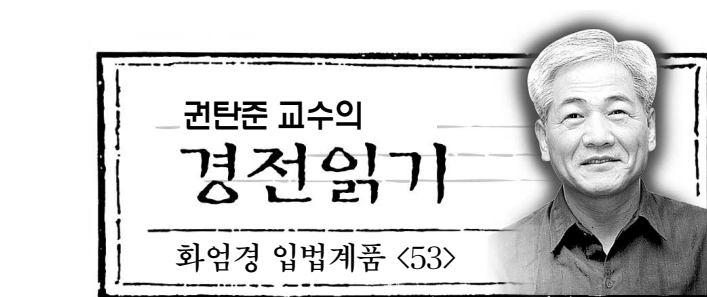
선재 동자가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주야신(普救衆生妙德主夜神)'이 있는 곳으로 가니, 그 주야신은 선재 동자를 위하여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시키는 해탈'의 신성한 힘을 보이고, 여러가지 거룩한 몸매로 몸을 장엄하며, 양미간에서 '지혜의 등불을 두루 비추는 깃발(智燈普照幢)'이라고 하는 큰 광명을 발하였다. 그 광명은 한량없는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으며, 모든 세간을 비추고는 선재 동자의 정수리로 들어가서 온 몸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재 동자는 '끝까지 청정한 바퀴삼매(究竟清淨三昧)'라고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즉 그는 낱살의 티끌 속에서 끝이 없는 세간의 생멸 변화, 우주의 구조, 모든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세계의 여러 길에서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을 보았는데, 온갖 때와 여러 곳에서 여러 중생의 형상과 말과 행동과 이해를 따라서 방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알맞게 교화하면서 중생들의 고통과 공포를 없애주고 있었다.

이때 선재 동자는 이 주야신의 이런 신통의 힘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경지와 두루 나타나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는 보살의 해탈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 알드려 예배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다. 이때 선재 동자는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에게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어떠한 힘을 뒤아서 청정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주야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알기 어려우니 모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승(二乘)들도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3>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의 법문

## 형상·말·행동 따라 고통 없애줘 일체 세계에 두루 머무르며 자비 실천

헤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무른 이의 경계이며,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이의 경계이며,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의 종자를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의 경계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니는 이의 경계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야신은 자기가 터득하고 있는 법문의 유래를 그의 본생(本生)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지나간 옛적 티끌 수겁 전에 사천하의 염부제에 '보배꽃 등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비로자나 묘한 보배 연꽃상투'라고 하는 전륜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의 이름은 '월만한 얼굴'이었고, 딸의 이름은 '넓은 지혜의 불꽃 미묘한 덕의 눈'이었다.

수미산 티끌 수의 부처님이 그곳에서 출현하셨는데, 첫 부처님의 이름은 '보

곳마다 이 선지식을 항상 떠나지 말게 하여지이다'라고 발원하였다.

그 때에 전륜왕은 권속과 함께 나서 부처님을 뵈고 여래의 출현을 찬탄하며 가지 가지의 광대한 공양거리를 허공에 가득히 장식하였다. 전륜왕의 딸도 장공을 불러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이 때 여래께서 경을 말씀하시니 전륜왕의 딸이 이 경을 듣고 일반 가지 삼매문을 성취하고, 한없이 거룩한 여러가지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큰 서원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서원과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려는 서원 등 열 세계의 티끌 수 서원바다를 세워서 보현보살이 가진 큰 서원을 성취하려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과거 무수한 세계에서 항상 보현보살의 인도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고 무량한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며, 그분들이 설하는 법문을 들었다. 그리하여 저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지혜 광명을 얻고 모든 보현의 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지금의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이다.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이 살고 있는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시키는 해탈'법문은 보살이 세간에 머무르면서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법문이 근거로 하는 선지식은 보현보살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일체 세계에서 두루 널리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현행이라고 하는 점이다. '널리 중생을 구호하는 묘한 덕(普救衆生妙德)'이라고 하는 주야신의 명칭도 결국은 보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회 부 교수>

## 네터즌 교리문답

### 절을 세번하는 이유는?

문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잖아요? 그때 삼배를 올리는데... 절을 세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귀의 하시고 관련이 있는건가요?(D '지혜성')

답 1 : 부처님(불), 부처님의 가르침(법), 불교 공동체(승)에 귀의하고 예경한다는 의미로 절을 세 번 합니다. 불법삼배에 절을 하되, 결국은 자성불(내 마음의 부처) 즉, 자신의 몸을 끌고 당기는 '그것'과 하나된다는 마음을 내어야 겠습니다.(D '푸른바다')

답 2 : "거룩하신 불보(佛寶)와 법보(法寶)와 승보(僧寶)께 귀의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계(戒) 정(定) 혜(慧) 삼학을 이루오라" 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삼배(三拜)를 올릴 때 불자의 마음은 계정혜 삼학으로 복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D '삼배')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27 견성성불(見性成佛)-14

지난 회 글에서, 본각(本覺)을 강조하느냐 시각(始覺)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의 수행론이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본각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있는 그대로 이미 깨달음을 성취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오래 전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선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번뇌 하나 털고 말고 할 것 없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입장을 표현한다.

자로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상이라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꿈 또는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사건이 필요하다. 깨어보면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요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원래 제 자리일 뿐이지만, 아무튼 깨어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이른바 임제종 전통에서는 그 깨어나는 사건을 중시한다. 이렇듯엔 시각(始覺)을 중시하는 것이다.

처음에 그 표현을 언급할 때, 번뇌라는 것이 워낙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말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중생은 번뇌 속에 살기 때문에 중생이다. 번뇌란 온갖 탐욕과 어리석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번민과 고뇌, 괴로움이다. 중생에게 번뇌는 무연한 것이다. 그냥 무현실이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번뇌가 아무리 엄연한 현실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꿈속에 있던 깨어나 있건 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뿐임을 강조할 수도 있다. 꿈이나 착각은 실체가 없고 허망하니 깨어나니 어찌나 할 것도 없다. 이미 모두가 본래 깨쳐 있는 부처님이니, 부처가 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성불하겠다고 작정하고 좌선하는 것은 도통 잘 못이다. 그냥 무연한 것이다. 그냥 무현실이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번뇌가 아무리 엄연한 현실로 여겨진다

### 꿈, 착각 모두 허망 "중생이 본래 부처"

실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 적어도 대승불교 교리의 입장이다. 번뇌를 엄연한 현실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번뇌이다. 중생은 언제부터라 할 것도 없이 오래도록 꿈속에 빠져있다는 표현이 경전에 자주 나온다. 중생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이 현실이요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실은 꿈일 뿐이니, 꿈을 현실이라 여기는 어리석음까지도 깨어난 진짜 현실에서 보면 꿈속의 일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본다는 비유도 자주 등장한다. 허공에 꽃이 춤추니 신기하여 저 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다가 꽃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갔을까 의아해한다. 옆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보았을 뿐이라고 일러줄 것이다. 하지만 당사

작정, 즉 뭘 어찌겠다는 의도 없이, 부처님으로서 딱하니 앉아있는 것이 좌선이다. 일본에서 조동종을 일으킨 도선(道元)은 그것을 일컬어 지관타좌(只管打坐)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래 이미 깨쳐 있는 이가 행하는 수행이라고 해서 중상(證上)의 수(修)라고 일컫었다. 이것은 이렇듯엔 본각(本覺)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두 수행론이 정반대되는 양극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수행론이다. 깨진 이들의 입장에서야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하나의 실상일 뿐이지만, 꿈과 착각 속의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런저런 처방이나왔을 터이다.

유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2		25
26			24		27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가로 1. 전기를 일으키는 5. 보살의 최고위인 가지를 능히 7. 큰법 없이 공장 본지를 말한 8. 색이 곧 공과 같다 9. 일체의 사물은 모두 변하여 일정한 모습이 없음을 관하는 것 11. 불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출입구 13. 산을 오르기 위해 조직된 무리 14. 발톱과 이빨. 매우 긴요한 사람이나 물건의 비유 15. 큰 산 16. 지도에서 표출해낸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 19. 불사 등에 동침해 기부할 것을 호소하는 글지 21. 대나 짐으로 여겨 물건을 담는 그릇 23. 행태와 자태 24. 어떤 일의 중심이 되는 세력 26. 재물이 많은 사람 27. 수량을 셈.

## 세로

1. 건축이나 비석 따위의 기초가 되는 단 2. 바르게 사물을 볼 수 없는 전도된 마음 3. 이전부터 뒷속에 들어 있는 고정적인 관념 4. 착상이 없음 5. 열 술기라의 밥이 한끼의 식사가 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 6. 농구나 축구 등 경기에서 공격 시간을 늦추는 10. 머물러 집착함이 없음 12.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이나 선박을 구조하는 선박 13. 동산할 때 쓰는 모자 17. 많은 제자 가운데 특히 뛰어난 제자 18. 실체의 형편 20. 연꽃이 만발한 극락세계 21. 삼배에 든 경지 22.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기계 23. 언니의 남편 25. 반대의 순서로 계산함.